

보도시점 2024. 6. 18.(화) 7:00
(국제엠바고)

배포 2024. 6. 17.(월) 14:00

'24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기록

-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 인구 5천만 이상 국가)중 미국에 이어 2위 -
- 기업효율성(23위), 기반시설(인프라)(11위) 분야 역대 최고로 종합순위 상승 견인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18(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3년 대비 8단계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로 '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3→2위).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기반시설(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으며, 경제성과(14→16위)와 정부효율성(38→39위)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계단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인재유치(14→6위), 기업의 민첩성(28→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등의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

기반시설(인프라) 분야도 5계단 상승했다. 기본기반시설(인프라)(23→14위), 기술기반시설(인프라)(23→16위), 과학기반시설(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이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유통인프라 효율(8→3위), 우수 기술자(엔지니어) 가용성(47→29위), 대학교육지수(22→12위) 등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2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51→40위) 등 국내경제(11→7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제무역(42→47위) 부문이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으나,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1계단 하락했다. 5개 부문 중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조세정책(26→34위) 부문 순위가 큰 폭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료주의(60→54위), 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보조금의 공정경쟁·경제발전 왜곡(45→30위), 기회균등(40→23위), 남녀 실업률 격차(37→21위) 등의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 조세정책(26→34위) 부문은 '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조세(32→38위)·소득세(35→41위)·법인세(48→58위) 등 조세부담 증가가 큰 폭의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

앞으로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은정 (044-215-2830)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ldh5758@korea.kr)
		담당자	사무관	오성진 (eyesopen80@korea.kr)

1 우리나라 주요 평가 결과

□ '24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년 대비 8계단 상승한 20위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

* (계량지표) '23년 기준 통계(조세정책 등 일부 지표는 '22년 이전 자료도 있음)
(설문지표) '24.3~5월 조사결과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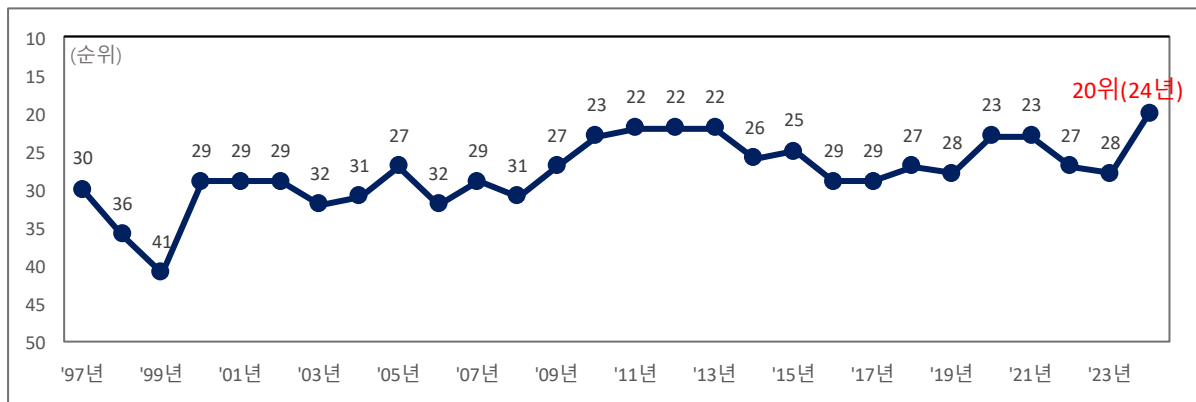
** '97년부터 한국 순위 발표 → 이전 한국 최고 순위는 22위('11~'13년), 최저는 41위('99년)

○ 30-50 클럽 7개국* 중 2위,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국** 중 7위

* 미국(12위), **한국(20위)**, 독일(24위), 영국(28위), 프랑스(31위), 일본(38위), 이태리(42위)

** 대만(8위), 미국(12위), 호주(13위), 중국(14위), 사우디(16위), 캐나다(19위), **한국(20위)**

【 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변화 추이 】



□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10↑), 인프라(5↑) 순위가 대폭 상승, 경제성과(2↓), 정부효율성(1↓) 순위는 소폭 하락

< 4대 분야 20개 부문별 순위 >

	경제 성과 (14 → 16, 2 ↓)					정부 효율성 (38 → 39, 1 ↓)					기업 효율성 (33 → 23, 10 ↑)					인프라 (16 → 11, 5 ↑)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	재정	조세정책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관행	태도·가치관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23년	11	42	32	4	41	40	26	33	53	33	41	39	36	35	18	23	23	2	29	26
'24년	7	47	35	4	43	38	34	30	47	29	33	31	29	28	11	14	16	1	30	19
등락	4↑	5↓	3↓	-	2↓	2↑	8↓	3↑	6↑	4↑	8↑	8↑	7↑	7↑	7↑	9↑	7↑	1↑	1↓	7↑

□ **(경제성과: 14→16위)** 국내경제(4↑)는 순위 상승, 고용(4위)은 유지, 국제무역(5↓), 국제투자(3↓), 물가(2↓) 부문은 하락

- **(국내경제)** 성장률(44→34위), 총고정자본형성(51→40위) 상승
- **(국제무역)** 무역수지(54→49위) 상승, 민간 서비스수지(38→62위) 하락
- **(국제투자)** 해외직접투자(24→22위) 상승, 기업 이전이 미래경제에 미치는 위협(64→67위, 설문) 하락
- **(물가)** CPI(14→18위) 하락(물가 순위는 '23년 큰 폭 상승 후 '24년 소폭 하락)

	'18	'19	'20	'21	'22	'23	'24(변동)
경제성과	20	27	27	18	22	14	16(2↓)
- 국내경제	9	16	11	5	12	11	7(4↑)
- 국제무역	35	45	41	33	30	42	47(5↓)
- 국제투자	35	30	30	34	37	32	35(3↓)
- 고용	6	10	12	5	6	4	4(-)
- 물가	54	53	48	51	49	41	43(2↓)

□ **(정부효율성: 38→39위)** 재정(2↑)·제도여건(3↑)·기업여건(6↑)·사회여건(4↑) 부문 순위 상승, 조세정책(8↓) 부문 하락

- **(재정)**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 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상승
- **(조세정책)** '22년 기준 GDP 대비 총 조세(32→38위)·소득세(35→41위)·법인세(48→58위) 등 순위 하락(GDP 대비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순위 하락)
- **(제도여건)** 관료주의(60→54위, 설문), 뇌물·부패(32→27위, 설문) 상승
- **(기업여건)** 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설문), 보조금의 공정경쟁 및 경제발전 왜곡(45→30위, 설문) 상승
- **(사회여건)** 기회균등(40→23위, 설문), 남녀 실업률 격차(37→21위) 상승

	'18	'19	'20	'21	'22	'23	'24(변동)
정부 효율성	29	31	28	34	36	38	39(1↓)
- 재정	22	24	27	26	32	40	38(2↑)
- 조세정책	17	18	19	25	26	26	34(8↓)
- 제도여건	29	33	29	30	31	33	30(3↑)
- 기업여건	47	50	46	49	48	53	47(6↑)
- 사회여건	38	39	31	33	35	33	29(4↑)

- **(기업효율성*: 33→23위)** 생산성·효율성(8↑), 노동시장(8↑), 금융(7↑), 경영관행(7↑), 태도·가치관(7↑) **全 부문 순위 상승**

* 그간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설문(기업인 대상) 지표 순위가 큰 폭 상승

- **(생산성·효율성)**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디지털 기술 사용(12→11위, 설문) 등 상승
- **(노동시장)** 근로의욕(58→49위, 설문), 인재 유치(14→6위, 설문) 등 상승
- **(금융)** 주식시장(41→37위, 설문), 기업신용(49→38위, 설문) 등 상승
- **(경영관행)**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43→17위, 설문), 고객만족도(16→3위, 설문), 기업의 민첩성(28→9위, 설문) 등 상승
- **(태도·가치관)** 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설문), 기업의 디지털전환(11→6위, 설문) 상승

	'18	'19	'20	'21	'22	'23	'24(변동)
기업 효율성	43	34	28	27	33	33	23(10↑)
- 생산성·효율성	39	38	38	31	36	41	33(8↑)
- 노동시장	53	36	28	37	42	39	31(8↑)
- 금융	33	34	34	23	23	36	29(7↑)
- 경영관행	55	47	36	30	38	35	28(7↑)
- 태도·가치관	30	25	15	21	23	18	11(7↑)

- **(인프라*: 16→11위)** 기본인프라(9↑), 기술인프라(7↑), 과학인프라(1↑), 교육(7↑) 부문은 상승, 보건·환경(1↓) 부문은 하락

* 그간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설문(기업인 대상) 지표 순위가 큰 폭 상승

- **(기본인프라)** 수자원 접근성(13→6위, 설문), 유통인프라 효율성(8→3위, 설문) 상승
- **(기술인프라)** 우수 엔지니어 가용성(47→29위, 설문), 사이버보안(24→20, 설문) 상승
- **(과학인프라)** 지식이전(26→25위, 설문) 상승, 인구 대비 R&D 인력(1→1위), 특허(4→4)는 상위권 유지
- **(보건·환경)** 환경오염(50→40위, 설문) 상승, 보건인프라(14→27위, 설문) 하락
- **(교육)** 중등학교 등록률(36→11위), 대학교육지수(22→12위) 상승

	'18	'19	'20	'21	'22	'23	'24(변동)
인프라	18	20	16	17	16	16	11(5↑)
- 기본 인프라	22	23	20	18	16	23	14(9↑)
- 기술 인프라	14	22	13	17	19	23	16(7↑)
- 과학 인프라	7	3	3	2	3	2	1(1↑)
- 보건·환경	32	32	31	30	31	29	30(1↓)
- 교육	25	30	27	30	29	26	19(7↑)

참고 1

IMD 국가경쟁력 평가 개요

기관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로잔)																																					
발표	▶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대상	▶ OECD 국가 및 신흥국 총 67개국																																					
목적	▶ 국가와 기업이 그들의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평가 * (국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 (기업)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역량																																					
구성	<p>▶ 4대 분야, 20개 부문, 336개 세부항목*(보조지표 제외시 256개) * 통계자료: 164개 + 설문조사: 92개 / 보조지표: 80개</p> <table><tr><th colspan="5">경제성과</th><th colspan="4">정부 효율성</th><th colspan="4">기업 효율성</th><th colspan="4">인프라</th></tr><tr><td>국내경제</td><td>국제무역</td><td>국제투자</td><td>고용</td><td>물가</td><td>재정</td><td>조세정책</td><td>제도여건</td><td>기업여건</td><td>사회여건</td><td>생산성·효율성</td><td>노동시장</td><td>금융</td><td>경영관행</td><td>태도·가치관</td><td>기본인프라</td><td>기술인프라</td><td>과학인프라</td><td>보건환경</td><td>교육</td></tr></table>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	재정	조세정책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관행	태도·가치관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	재정	조세정책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관행	태도·가치관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자료	<p>▶ (통계) 국제기구, 각국 정부통계, 민간기업 등의 자료 활용*</p> <p>* 국제기구 (IMF, World Bank, OECD, ILO 등), 정부통계(통계청 등), 민간기업 (Mercer HR Consulting - 생계비지수 등)</p> <p>▶ (설문)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IMD 및 각국 파트너기관 (한국: KIEP)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p>																																					

참고 2

국가별 순위변동표

국가	순위			국가	순위		
	'22	'23	'24		'22	'23	'24
싱가포르	3	4	1	카자흐스탄	43	37	35
스위스	2	3	2	포르투갈	42	39	36
덴마크	1	1	3	쿠웨이트	-	38	37
아일랜드	11	2	4	일본	34	35	38
홍콩	5	7	5	인도	37	40	39
스웨덴	4	8	6	스페인	36	36	40
UAE	12	10	7	폴란드	50	43	41
대만	7	6	8	이탈리아	41	41	42
네덜란드	6	5	9	사이프러스	40	45	43
노르웨이	9	14	10	칠레	45	44	44
카타르	18	12	11	라트비아	35	51	45
미국	10	9	12	슬로베니아	38	42	46
호주	19	19	13	그리스	47	49	47
중국	17	21	14	요르단	56	54	48
핀란드	8	11	15	푸에르토리코	-	-	49
사우디아라비아	24	17	16	루마니아	51	48	50
아이슬란드	16	16	17	크로아티아	46	50	51
벨기에	21	13	18	필리핀	48	52	52
캐나다	14	15	19	터키	52	47	53
한국	27	28	20	헝가리	39	46	54
바레인	30	25	21	보츠와나	58	59	55
이스라엘	25	23	22	멕시코	55	56	56
룩셈부르크	13	20	23	콜롬비아	57	58	57
독일	15	22	24	불가리아	53	57	58
태국	33	30	25	슬로바키아	49	53	59
오스트리아	20	24	26	남아프리카공화국	60	61	60
인도네시아	44	34	27	몽골	61	62	61
영국	23	29	28	브라질	59	60	62
체코	26	18	29	페루	54	55	63
리투아니아	29	32	30	나이지리아	-	-	64
프랑스	28	33	31	가나	-	-	65
뉴질랜드	31	31	32	아르헨티나	62	63	66
에스토니아	22	26	33	베네수엘라	63	64	67
말레이시아	32	27	34				

* 굵은 표시는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